

# 'KREI리포터' 전북지회 간담회 결과

## 1. 개요

- 목 적: 전북지역 농업·농촌 현장여론 수집, 회원농가 견학
- 일 시: 2018년 7월 30일(월) 11:00~15:00
- 장 소: 전북 완주군
- 참 석: 총 11명
  - 전북지회 리포터(9명): 강병준, 권승룡, 박광양, 박향숙, 심요섭, 윤선웅, 임장옥, 전경택, 양한오
  - 연구원 관계자(2명): 송성환 전문연구원, 김미리 주무원
- 주요 일정

시 간	일 정	비 고
11:00~12:00	간담회	- 농업·농촌 현장여론 수집
12:00~13:00	점심식사	- 장소: 자매회관
13:00~15:00	견학	- 윤선웅 회원농가 '삼촌농장'
		- 국립원예특작과학원

## 2. 주요 논의 내용

### ○ 회원농가 및 관계기관 견학

- 윤선웅 회원농가 '삼촌농장'
  -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윤선웅 회원농가 '삼촌농장' 은 유기농 벼와 백향과(패션프루트)를 생산함.
  - 화학비료 없이 유기농법으로 재배하여 껍질과 꽃까지 식재료로 사용
  - 당도가 높고 백가지 향긋한 향이 난다하여 이름 붙여진 백향과는 엽산과 니아신, 비타민C가 풍부하여 여성들에게 특히나 인기가 많음.
  - 과일청으로 만든 에이드와 꽃차로도 만들고, 신맛을 줄이기 위해 설

당을 가미한 백향과진액을 개발, 상품화를 앞둬.

- 백향과는 나무에서 직접 수확하지 않고 완전히 익었을 때 땅에 떨어 지는 것을 사람이 줍는 방식으로 수확함.
- 진액을 빼고 남은 껍질이나 상품성이 없는 백향과는 자가양분으로 활용함.
- 국립원예특작과학원
  - 전주혁신도시에 위치한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농촌진흥청 소속 국립 연구기관으로서 채소, 과수, 화훼, 인삼, 약용작물, 버섯 등 원예특용 작물에 대한 품종육성과 생산기술 등을 연구하는 곳임.
  - 기술지원과 김미도 담당자께서 과학원에서 개발된 원예작물과 주요 연구성과를 안내해주었음.
  - 종자 육종, 작물 효능 등에 대해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짐.

### ○ 농림업 분야 남북협력 확대를 위한 방안

- 정권에 따라 협력체계가 많이 달라짐. 농림업 분야 보다는 정치적 안정이 우선이라 생각함.
- 일방향의 대북지원 형태가 아닌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남북 교류형 협력을 지향해야 할 것임.
- 먹고살기 힘든 환경에서 경제발전은 어려워,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최소 식량자원이 필요할 것임. 북한 주민의 식량문제 해결을 최우선시 하여 쌀 등 식량자원을 제공하여 할 것임.
- 북한을 돕자는 목적에는 반대하지 않으나 무조건적인 지원은 자생력을 떨어트릴 것이라 우려가 있음. 남는 쌀을 낮은 가격에 제공하면 우리 농가소득도 보전되고, 북한에 식량문제도 해결될 방안이 될 것임. 무상 지원이 아닌 자생력 증진을 위한 생산기술 지원, 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.

○ 기타 활성화 방안 논의

- 연구원에서 농업이슈에 관한 조사 진행 시 그 목적에 대해 명시해줄 것을 부탁함.
- 간담회에 회원농가 및 선진지 견학 등 알찬 구성으로 회원 참석 독려에 노력 강구하기로 함.

3. 이모저모

